

We're at the end of the first week of tennis at Wimbledon. Even while not playing at this time, Serena Williams has kept her name in the spotlight. For, Serena is a champion tennis player. But a few years ago, she got into a big mess. She was close to losing her match when the linesperson called a foot fault on her serve. The call greatly upset her. She started swearing at the linesperson and allegedly threatened her. As a result, Serena received a code violation. She lost that game. And then she lost the match.

우리는 윈블던 테니스대회의 첫번째주의 끝에 있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이번에 참가하진 않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세계 테니스 챔피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몇년전 엄청난 곤경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거의 시합을 저가고 있을때, 라인즈맨이 그녀의 서브가 선을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엄청나게 화나게 했고, 그녀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라인즈맨을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코드바이올레이션을 받았고, 그 게임을 졌고, 그리고 나서 그 매치를 지고 말았습니다.

Did Serena deserve her code violation, along with the point awarded against her? Yes, she did! Her language and behaviour were unworthy of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So, in the end, it mattered very little whether she had foot-faulted or not. Justice had to be done for her bad behaviour. The penalty soon brought an end to the match. The umpires did the right thing. Justice was carried out immediately and that's satisfying to see. But it's not always the way it works. In Habakkuk's case, he would not see justice done so quickly.

세레나가 상대방에게 주어진 포인트와 더불어 그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받아야 마땅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마땅히 받을만 했습니다! 그녀의 언어와 행동은 프로 테니스 선수와 맞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녀의 공이 선을 밟았던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행해진 것이지요. 그 댓가로 곧 그 매치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 심판은 옳은 일을 하였고, 정의가 즉각 수행되어 보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일들이 언제나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의 경우, 그렇게 신속하게 정의가 수행되는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At first, the nation of Judah caused Habakkuk much concern. Among God's people there was destruction and violence, strife and conflict (1:3). The law was paralysed. Habakkuk makes two comments about justice in 1:4, *Justice never prevails... justice is perverted*. But then God promises to do something totally amazing (1:5). We can imagine that this news would delight Habakkuk. Justice would be done. However, God tells Habakkuk that He'll send the Babylonians to deal with the violence in Judah. It was incredible! The violent Babylonians would overrun the land (1:6).

처음에 유다 민족은 하박국을 매우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강포, 패역, 분쟁, 갈등이 있었습니다 (1:3). 율법은 마비되었습니다. 하박국은 1:4 절에서 정의에 관한 두가지 언급을 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굽게 행해졌음이니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완전히 놀랄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 우리는 이 소식이 하박국을 기쁘게 했을것이라고 짐작할수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강포를 다스릴 바벨론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적인 바벨론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1:6).

And God kept His promise. Under king Nebuchadnezzar, the Babylonians took many of the people captive to Babylon. But before they came, Habakkuk realised that history wasn't under his control. So he decided to watch and wait, in order to see what kind of justice God could bring about (2:1).

God encouraged Habakkuk by telling him that the end to Judah's trials would come. The proud and arrogant Babylonians would fall. Clearly, God will bring about this end. In fact, God raised up Cyrus. Cyrus eventually overthrew the Babylonians and let God's people return the Judah and Jerusalem (Ezra 1).

Meanwhile, the LORD says (2:4b),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By faith we enter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is faith (or faithfulness) then determines, even defines, how we live.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시행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바벨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박국은 역사가 그 왕의 통치하에 있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떤 식의 정의를 하나님이 시행하는지를 알기 위해 지켜보고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시험의 끝이 올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함으로써 그를 격려합니다. 그 거만하고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은 몰락 할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을 보이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우십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에스라 1).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2:4)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실한 믿음은,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Before looking at today’s passage (Habakkuk 2:5-11), what does Habakkuk want to see happen? In the first place, he wants justice restored to the land. His cry to God in 1:3 reads,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When God promises to send the Babylonians this really stretches Habakkuk’s mind. What kind of justice is it, to use the Babylonians to bring about justice? In 1:13b we get an idea of what he’s thinking.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up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How could God use a people more wicked than Judah to deal with Judah’s wickedness?

Put yourself in Habakkuk’s shoes for a moment. In his situation, what would you want God to do? Clearly, you’d want God to bring about an end to violence and corruption. Normally, you’d expect the law courts to take care of the matter. But, we read in 1:4a, ***The law is paralysed.***

We don’t know how the law was paralysed. However, we have a similar situation here in Australia. We have increasing violence, and not only just here in Melbourne.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 law is not our solution to this problem. (God may be using a similar answer to our problem as He did for Judah.)

God’s solution surprises us, just as much as it did Habakkuk. This answer to Habakkuk’s cry marks the contrast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We read in 2:4, ***“See, he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In the rest of this chapter, the Lord outlines what will happen to the Babylonians. But first, He summarises His words from 1:5-11.

오늘의 성경말씀 (하박국 2:5-11)을 보기 전에, 하박국이 보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는 정의가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1:3 절의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잘못을 참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유다보다 더 패악한 사람들을 통해 유다의 패악을 다룰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박국과 잠시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다의 타락과 강포에 끝을 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여러분은 그 일들이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4 절에서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 해이해졌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호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폭력은 증가하고있고 그것은 여기 멜번에서만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법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비슷하게 다룰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박국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박국의 울부짖음에 대한 이 응답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간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2:4 절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라 그들은 교만하고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2 장 말씀의 나머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1:5-11 절에 요약해놓습니다.

2:5 sets the scene, **“Indeed, wine betrays him; he is arrogant and never at rest. Because he is as greedy as the grave and like death is never satisfied, he gathers to himself all the nations and takes captive all the peoples.”** The arrogant and proud have ungodly desires. They will never come to enjoy God’s blessings. That’s the way God works. For a time, they may appear to be blessed, but their sinful arrogance betrays them and ultimately destroys them.

The end of Babylonian rule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2:3b). Meanwhile, very strong imagery describes how ruthless the Babylonians were. Their *greed* is insatiable, unable to be quenched. God compares this greed to the uncontrollable appetite of death (2:5). Death and the grave continue to swallow up life. So too, the Babylonians would swallow up all that was before them. They’d gather all nations and people under their control.

25 절은 “그는 술을 즐기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덤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한거 같아 죽할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나라를 모으고 여러백성을 모으나니”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잠시동안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성이 가득한 교만함은 그들을 배신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파멸 시킬것 입니다.

바벨론의 지배의 끝은 틀림없이 오고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2 3), 그러는 동안 얼마나 바벨론이 무자비한지에 대한 매우 강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욕망을 죽음의 통제할수 없는 식욕으로 묘사합니다 (2 5). 죽음과 무덤은 계속해서 생명을 삼켜 없앱니다. 바벨론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모았습니다.

Selfishness would lead to their undoing. Habakkuk 2:5a, **“Indeed, wine betrays him.”** One man said that when he’d had a few drinks he was still a good driver. He suggested that alcohol improved his driving skills. But that’s the effect alcohol has on the mind. It deceives people into thinking that they’re in control of their actions. In fact they’re not. Statistics reveal that alcohol is a major factor in causing car accidents. Alcohol is a drug of addiction.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Thus the Babylonians became intoxicated with their own success.

Death and the grave continue to swallow up life. But they’re ultimately conquered by the Author and Giver of Life. For Judah, this happened when Cyrus overthrew the Babylonians. Yet this prophecy has an immediate and a future meaning. For us, we have victory over sin and death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We read in 1 Corinthians 15:55,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However, unlike Habakkuk, though we have victory now, we await Christ’s return for this to be seen as finally complete.

이기심은 그들의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박국 25 절은, “실로 술은 그를 속이나니”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그가 몇잔 마셨을때도, 여전히 운전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콜이 그의 운전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콜이 그의 마음에서 말하는 효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속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통계에 의하면 알콜은 차 사고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알콜은 중독성있는 약물입니다. 더 많이 우리가 마실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만의 성공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계속해서 생명을 삼켜 없애지만, 그것들은 끝내 그 생명의 공급자이자 창조자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때 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바로 그 때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 장, 15-55 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읽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승리를 가졌지만, 그 승리가 마침내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날을 기다립니다.

In another context I heard someone put it in this way. In June, 1944, Allies troops landed on Normandy. It was near to the end of WW II. That day was called D Day. But it was not the end of the war. Yet it marked war's end. Victory finally came in May, 1945. At that time the Germans accepted defeat. That day is called V-E Day (Victory in Europe Day). It had been given that title since September, 1944. But the final victory had not been won. Victory was 8 months away. But victory was assured. It could be spoken of as if it had happened before May, 1945. So too, we can speak of Christ's victory as ours, even now, though the final victory awaits His return.

Psalm 37 is a commentary on Habakkuk 2. 37:1, 2, ***Do not fret because of evil men or be envious of those who do wrong; for like the grass they will soon wither, like green plants they will soon die away.*** Then, we read in 37:34, ***Wait for the LORD and keep his way. He will exalt you to inherit the land; when the wicked are cut off you will see it.*** Here are two more verses, 37:37, 38, ***Consider the blameless, observe the upright; there is a future for the man of peace. But all sinners will be destroyed; the future of the wicked will be cut off.***

또다른 배경에서 저는 누군가가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이차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디데이로 불렸지만,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가 전쟁의 끝으로 기록됩니다. 승리가 마침내 1945년 5월에 왔습니다. 그 당시 독일군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날은 V-E 데이 (유럽연합의 승리) 로 불리웁니다. 그 명칭은 1944년 9월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8개월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확신되었었고, 그래서 승리가 1945년 5월전에 일어난 것처럼 말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최종 승리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크리스천의 승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 편은 하박국 2 장에 대한 주석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시편 37:1, 2). 다음으로 37:34 절에서는 "여호화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 두 절이 더 있습니다, 37, 38 절, "온전한 사람은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니라".

In the New Testament, Christ's return will end this sinful age. 2 Thessalonians 1:6, 7, ***God is just: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and give relief to you who are troubled, and to us as well.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Just as it was in the time of Daniel, the 'handwriting is on the wall' for the Babylonian kingdom (Daniel 5). So too, it is for the wicked in our day and age.

Meanwhile, nothing can satisfy the appetites of the wicked. Habakkuk 2:5, ***He is arrogant and never at rest... never satisfied.*** And so the LORD's words bring promises of hope along with a grim future. Palmer Robertson writes, *"The justified (by faith) shall live by his steadfast trust"* summarises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gospel, while the pride of the unbeliever explains his unending brutality against the people of the Lord.

God, having revealed an end to Habakkuk's problem, now examines the fate of the proud and arrogant. Indeed, the LORD had said in 2:2,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This message for all people, is for all time. Five mocking statements assure us that God's people are always in His sight. (Today, we'll consider two.) The first is in Habakkuk 2:6, ***"Will not all of them taunt him with ridicule and scorn, saying, 'Woe to him who piles up stolen goods and makes himself wealthy by extortion! How long must this go on?'"***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죄많은 시대의 끝이라고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이를 이루시리라" (1:6-7) 이는 바로 다니엘 때처럼, 바벨론 왕국에 대한 "벽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다니엘 5 장). 이는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사악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무것도 그 사악한 자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하박국 25절은, “그는 교만하여 결코 씀이 없나니...결코 만족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냉혹한 미래와 함께 희망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팔머 로벗슨은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믿음에 의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며, 불신자들의 거만함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한 끝없는 잔혹함을 설명하는 동안, 크리스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문제의 끝을 밝히셨지만, 이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의 운명을 점검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22절에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수 있게 하라.” 이 메세지는 모두를 위하고, 또 모든 때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개의 조롱하는 문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두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박국 26절에 있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The day will come when those who bully God’s people will be mocked by those whom they bullied. Truly, this is *poetic justice* [= they deserve what’s coming to them]. This is Old Testament justice, not vengeance. And the message is still valid today.

The Lord Jesus makes this point in His parable about the unforgiving servant. He threw a fellow servant into prison because he couldn’t pay a small debt. Previously, his master had forgiven the unmerciful servant a huge debt. That unmerciful servant was then sent to prison until he could pay back all that he owed.

Habakkuk 2:7 speaks to Babylon. “**Will not your debtors suddenly arise? Will they not wake up and make you tremble? Then you will become their victim.**” The word *debtors* can mean ‘to bite.’ Figuratively speaking, that’s what a debtor does. Having lent you money, he bites a chunk from your possessions. So, the Babylonians’ debtors will suddenly rise up against them.

Keep in mind that this is divine judgment. Yet God is merciful. He gives sinners time to repent. (Thus, the Lord Jesus hasn’t yet returned to this earth.) However, mercy must be balanced with justice. Unrepentant sinners cannot presume upon God’s mercy.

We can never be sure that His mercy will continue any longer than the present moment. Palmer Robertson again, *Divine retribution is sure to come, and it may come without additional prior warning.*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던 사람들은 그들이 조롱했던 자들에 의해 조롱당할 것입니다. 실로 이는 권선징악 (뿌린대로 거둔다) 입니다. 이는 구약의 정의이지, 양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메세지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종에 관한 그의 비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또다른 동료 종이 작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 전에 그의 주인이 엄청난 빚을 졌음에도 그 무정한 그를 용서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 무정한 종은 그 다음, 그가 빚진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하박국 27절에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그들의 노략질의 대상이 되리라.” ‘채권자’라는 단어는 “무는것”을 의미할수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채권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돈을 빌려준 다음, 그들은 여러분의 소유물 상당량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채권자들은 그들에게 대항해 갑자기 일어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정의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정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저 믿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현재 이 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됩니다. 팔머 로벗슨은 “신성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는 또다른 추가적 사전 경고 없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In His parable of the ten virgins (Matthew 25:1-13), the Lord Jesus speaks about this. Five virgins were wise and five were foolish. 25:3, 4, **The foolish ones took their lamps but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The wise, however,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s. The bridegroom was late, and all the virgins fell asleep.

Finally, the bridegroom arrived. But, the foolish virgins had no oil for their lamps. The wise virgins did not have enough to share. So, the foolish virgins were forced to go off and buy oil for their lamps. As a result, they were shut out of the wedding banquet.

The Lord Jesus reminds us that we don't know the hour of His return. Meanwhile, His warning is clear. Be ready! But how? There's only one way to prepare: with repentance for sin and faith in the Lord Jesus. In other words, we confess our need for the Lord Jesus. We need His death for our sakes, to satisfy the wrath of God against all sin. And so we come to Him, trusting that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re for us. For, it is in and through Christ that we enter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at's *righteousness*. It is God declaring that we'r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열처녀의 비유(마태 25 1-13)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 말하셨습니다. 다섯 처녀는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25 3 4 절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느니라." 신랑은 늦었고, 모든 처녀들은 잠들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알수 없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할수 있는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필요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옳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In Habakkuk 2:8 there's another reason for this divine judgment. 2:8, ***"Because you have plundered many nations, the peoples who are left will plunder you. For you have shed man's blood; you have destroyed lands and cities and everyone in them."***

Cruel violence had (and has) been done to the whole of creation. Clearly, the way that we treat God and His creation determines how God will treat us. This is a sober warning to those politicians and military leaders who brutally treat other people. One day, they shall receive the same treatment at the hands of those whom they oppress. And, if Habakkuk is any guide in this, God's justice may come sooner than the return of Christ.

The first *woe* turned back on the Babylonians what they had done to others. The second *woe* is found in Habakkuk 2:9-11. 2:9, ***"Woe to him who builds his realm by unjust gain, to set his nest on high, to escape the clutches of ruin!"*** Nebuchadnezzar wanted to make an everlasting name for himself. To do this, he relied on *unjust gain*. This led Nebuchadnezzar to feel the need for security. He needed to *set his nest on high, to escape the clutches of ruin*.

하박국 2 8 절에는 이 신성한 정의에 관한 또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여러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잔인한 폭력과 창조된 전부에게 행해졌던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창조물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다른 정치인들이나 군사적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그들이 압박했던 자들의 손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하박국이 어떤 것을 앞서 보여주기로 되어있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빨리 올수도 있겠지요.

첫번째 재앙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두번째 재앙은 하박국 2 9-11 절에서 발견할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느부갓네살은 스스로의 이름이 영원히 남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부당한

이익에 의존하였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을 안전을 위한 필요를 느끼게 했고, 그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동지를 지었습니다.

The same is true today of those who accumulate great wealth through extortion and oppression. You'll find gates, guards, guns, dogs, alarms, walls and fences around the dwellings of such people.

As for Nebuchadnezzar, his palace had walls that were about 50 m thick. Each brick in the outer course of wall had his name inscribed on it. He pursued his own glory. But this too would lead to his destruction. 2:10, **"You have plotted the ruin of many peoples, *shaming your own house and forfeiting your life.*"** In effect, he was laying the foundation of his own demise, his own end.

2:11, **"The stones of the wall will cry out, and the beams of the woodwork will echo it."** By evil gain Nebuchadnezzar had built Babylon. His 'hanging gardens' were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Yet the voices of those people whom he oppressed would cry out from the materials used in his buildings.

똑같은 일이 오늘날 착취와 압제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의 거주하는 곳 주변에 대문과 경호원 층과 개, 알람, 벽과 담장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의 궁전은 50 미터나 되는 성벽으로 둘러쌓여 있었습니다. 그 바깥 벽의 각각의 벽돌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역시 파멸로 이끌어졌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제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스스로의 사망, 그의 소멸의 기초를 쌓은 것이었습니다.

2 11 절에는 "담에서 돌이 울부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라고 합니다. 사악한 이득으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억눌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건물에 사용했던 자재 속에서 울려났었다고 합니다.

This is not as strange as you may think. A castle in Austria was used in WW II by Himmler as his headquarters. In that place, Himmler conducted many appalling experiments on women and young girls. In the 1960s it was bought by a Christian group.

Constant prayer has been necessary to remove the forces of spiritual evil from that castle. Even as late as 1994, sensitive Christians were still aware of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at place.

The prophet Isaiah predicted that Babylon would fall and be left as a heap of ruins (Isaiah 14:22, 23). That city's fall started when Cyrus overthrew it in 539 BC. From that time on, it slowly fell into decay. Alexander the Great tried rebuilding Babylon. He failed to complete the project and died there in 323 BC.

In the twentieth century, Saddam Hussein wanted to restore Babylon. He saw himself as the reincarnation of Nebuchadnezzar (the king who'd destroyed much of Jerusalem by 586 BC.). However, Saddam Hussein was (in the words of one Jewish writer) reduced to the dust bin of history. He was hanged in 2006.

이는 여러분이 생각할수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차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본부로 사용했던 오스트리아의 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히틀러는 많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끔찍한 실험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1960 년에, 그곳은 한 크리스천 그룹에 의해 구입되었는데, 그 성에 있는 사악한 영의 힘을 없애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심지어는 1994 년 말에, 민감한 크리스천들은 그 곳의 사악한 영의 힘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이 몰락하고, 폐허의 잔해로 남게 될 것임을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14 22, 23). 그 도시의 몰락은 주전 539 년에 고레스가 그곳을 점령했을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곳은 서서히 패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주전 323 년에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20 세기에 사담 후세인도 바벨론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느부갓네살의 화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은 역사의 쓰레기통 (유대인작가의 단어를 빌리자면) 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2006 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This message from Habakkuk shocks us. How could a loving and merciful God allow the treacherous Babylonians overrun Judah in the first place? Then, we wonder how could He allow them to bring about their own destruction through pride and arrogance?

If you think of God as a sweet and kindly gentleman, then you've got the wrong picture of Him. He is a jealous God who will not allow another to share His glory. Furthermore, He will not tolerate sin.

When Adam and Eve rebelled against Him they were removed from the Garden of Eden, God's paradise. When the people in Noah's time sinned greatly, God destroyed them from the earth in the Flood. Later, the people built a tower at Babel (Babylon) claiming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Genesis 11). God dispersed the people from that place and confused their languages. I could go on, for I've only covered the first 11 chapters of Genesis.

하박국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번덕스러운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에 정복하게 하는가? 그런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 바벨론 스스로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들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착하고 친절하紳트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그의 영광을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죄를 참으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했을때,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에덴동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범했을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그들을 이 땅에서 파멸시켰습니다. 후에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만들기를 주장하면서 바벨탑을 건축하자, 하나님은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At the same time, God is faithful to the promises He has made to His covenant people. Yes, He will allow them to be punished. He even disciplines His children, for a time (Hebrews 12:7-11). But He will also rescue His faithful remnant. In doing so, God shows that the wicked cause their own end, destruction. Their time will come, and does come. We have many examples of this in the Bible—in the exodus from Egypt; the defeat of the prophets of Baal; and the time when Babylon was overrun by Cyrus.

God's faithfulness doesn't end there. Babylon becomes a symbol of the evil world 'dead set against' God. Revelation 16-19 give us a picture of judgment against that evil. An angel declares in a mighty voice (Revelation 18:2), "**Fallen! Fallen is Babylon the Great!**" While this is yet to happen, it's announced as though it had come to pass. And this is made sure and certain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벌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훈육하십니다 (히브리서 12:7-11).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신실한 남은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시간은 올 것이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이집트; 바알 선지자의 패배;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넘겨진 때-이러한 많은 예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세계적 "대적자"로 사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6-19 절은 우리에게 사단에 대한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위엄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계시록 18:2),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는 확실해지고 틀림없게 됩니다.

We read in Galatians 6:7,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That's as true for us today as it was when the apostle Paul wrote it, about 2,000 years ago. And it serves as a summary of Habakkuk 2. Yes, we deserve what's coming to us. But that's what makes our God so amazing. In His mercy and grace He offers us what we do not deserve: forgiveness of sin, eternal life and peace with Him. All of this is yours and mine,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our Lord.

Some of the most frightening words in the Bible come from the Lord Jesus Christ. He says in Mark 8:38,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

우리가 갈라디아서 6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그가 심는대로 거두니리라”. 이는 사도 바울이 썼던 약 2000년전에도 사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박국 2장을 요약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놀랍게 여기게 할 점입니다. 그의 자비와 은혜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만 하지 않은 것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과의 평강과 영원한 삶. 이 모든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되고 저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랄만한 단어들은 예수님으로 부터 옵니다. 그는 마가복음 8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Amen